

## 뉴질랜드 『절편녹용으로 수입해 달라』

값비싼 한약재인 녹용 수입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로이 퍼거슨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1일 오후 차 흥봉(車興奉) 복지부장관을 방문, 사슴뿔 형태로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녹용을 잘라서 포장한 절편녹용(Sliced Velvet) 형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차 장관은 이에 대해 『녹용 수입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식약청과 함께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해 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작년부터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온 뉴질랜드는 9월 중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 대사를 통해 관련부처에 강력한 로비를 시작한 것이다.

퍼거슨 대사는 식약청에도 청장을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행 식약청의 한약규격기준고시는 녹용을 사슴뿔 원형으로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절편형태로 수입이 허용되면 품질보증서도 첨부하고 보기 좋게 가공포장을 해서 상품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뉴질랜드산 녹용은 전체 수입량의 74.3%인 3만6천3kg 들여왔으나 값은 러시아산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수입녹용 가운데 가장 싸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정부는 『절편형태로 수입되면 녹용 원산지와 부위의 구별이 힘들고 아무리 뉴질랜드 정부에서 보증을 하더라도 국내 유통과정에서 가짜 녹용이 섞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서 유통되는 녹용의 80% 이상이 수입물량인 상황에서 뉴질랜드산 녹용의 절편수입을 허용하면 가짜 녹용이 활개를 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통상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중국에는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녹용수입량은 8만7천678kg으로 작년 1년 수입량인 4만8천455kg의 2배에 육박했다.\*

### 마취기구 공급안내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본회에서 마취기구를 공급중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 <취급품목>

- ◆ 마취기구 세트
- ◆ 주사기
- ◆ 바늘

신청전화 : (02)969-6600